

# 檢 이영렬 · 안태근 '돈봉투' 감찰 지시

### “대통령, 검찰·법무부에 공직기강 차원서 필요 판단”

### “석연찮은 부분 다수 명확한 진상규명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정농단 의혹 수사 책임자였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이 지검장을 비롯한 수사팀 관계자 7명 등은 안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이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이다.

윤 수석은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며 “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

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며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 이유와 배경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번 감찰 지시가 민정라인을 통한 지시인가 라는 질문에 “대통령 업무지시로 보면 된다”며 “민정에서는 법무

부와 검찰에 연락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감찰을 지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정보도 있었다”며 “검찰과 법무부에서 (알아서) 감찰에 착수했으면 대통령이 굳이 말씀하실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찰에 대한 감찰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신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있다는 뜻”이라며 “공직 기강의 (확립)차원에서 감찰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 공정위원장 김상조 · 보훈처장 피우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을 임명했다.

조현욱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한성대사회과학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경제학자로서, 금융산업과 기업구조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와 활동을 지속 해오신 경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김상조 교수는 ‘재벌 저격수’, ‘재벌 저승사자’ 등의 수식어를 갖고 있을 정도로 재벌개혁 운동에 앞장 서 온 인물이다.

참여연대 재벌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역임했고, 이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국 부장, 집단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주장해 왔다.

김상조 교수는 이번 대선 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른바 ‘J노믹스’를 설계하는 등 재벌개혁 관련 정책 설계에 크게 기여했다.

최초의 여성 보훈처장인 피우진 신임 처장은 육군 예비역 중령으로 1979년 소위로 입관, 특전사 중대장, 육군 205 항공대 헬기조종사 등을 지낸 여군이다.

청와대는 “남성 군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길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천장을 뚫고 여성이 처음 가는 길을 개척해 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2006년 유방암 수술 후 부당한 전역조치에 맞서 싸워 다시 군에 복귀함으로써 온 여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다”고 덧붙였다. /뉴스



김상조 공정위원장



피우진 보훈처장



민주당 국회 제2기 원내대표단 우원석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3기 민주정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 제2기 원내대표단 인선 발표 및 소개를 하고 있다.

## 세월호 296번째 희생자는 단원교 교사 고창석씨

세월호의 296번째 희생자는 단원교 교사 고창석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 10월 해저면에 가라앉은 세월호에서 황지현 양 시신을 발견해 인양한 지 931일 만이다.

이로써 미수습자는 8명이 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5일 오전 11시36분께 침몰해역(SSZ-2)에서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DNA) 분석을 의뢰한 뼈 1점에 대한 신원확인 결과, 고창석씨라고 밝혔다.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5일 이후 국과수에 DNA 분석을 4차례 의뢰했다.

DNA 분석은 2주 가량 빨라졌다. 뼈 상태가 양호한데다 뼈의 칼슘을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탈칼슘화)에 있는 부위를 우선 채취했기 때문이라고 현장수습본부 측은 설명했다. /뉴스

## 청와대, 정무비서관 한병도 · 국정상황실장 윤건영

### 제 1·2 부속비서관에 송인배 · 유송화, 공직기강비서관에 김중호 내정

청와대 비서실 인선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비서관에 한병도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익산 출신인 한 전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돼 국회 산업자원위원 등을 지냈으며, 대선캠프에서 정무2특보와 국민참여정책본부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윤건영 전 청와대 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윤 전 부실장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마지막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제 1·2 부속비서관에는 송인배 전 선거대책위원회 수행총괄팀장, 유송화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각각 발탁될 예정이다.

송 전 팀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사회조정2비서관을 지냈으며, 유 전 대변인은 2012년 대선 때 수행2팀장을 맡은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수행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김중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이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37회) 합격 후 총무처·문화체육부 사무관을 거쳐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장, 교육감사단장, 감사원장 비서관을 지냈으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청와대 파견 경력도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감찰 등을 담당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됐다.

인사가 늦어지는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민주당 심크렙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지낸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당초 김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최근 정책실장 후보군 중 한명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재용 기자

## 특검, '이재용 뇌물죄 재판' 증인으로 박근혜 신청

박영수 특별검사가 삼성 이재용(49)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박근혜(66) 전 대통령을 신청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14차 공판에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인해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수수 경위와 개별면담 당시 상황, 부정한 청탁이 예상되는 이 부회장의 현안에 대한 인식 등 공소사실 입증에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사실관계에서도 이 부회장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며 “증인으로 신청하며 기일은 6월 초나 중순경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추가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지 여부와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에게 박 전 대통령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등의 여부를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뉴스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천라북도!

#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2017 WTF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MUJU

2017. 6.24.(토)-30.(금)  
전북 무주 태권도원

세계는 무주 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One World, One Taekwondo at Taekwondowon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관: 무주태권도원, 무주군체육회  
후원: 한국태권도진흥재단, KFA, KPNP, Kwanju Bank, JBwoori Capital, ASIANA AIRLINES